

성인여성의 체형인식에 따른 의복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Clothing Preference Based on the Perceived Body Types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조윤주

Dept. of Clothing & Textile, Busan National Univ.

Lecturer : Cho, Youn-Joo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토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 in clothing preference based on the perceived body types.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a marketing strategy and alternative plan intended for users operating in a subdivided market, after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clothing preference based on the perceived body types. The respondents comprised 192 female adults, who were residents in Busan.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s: style, textile, and color of clothing.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discriminate analysis, and ANOVA. Cluster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groups of respondents based on the five delineated measure items. Based on the findings, three distinct groups were formed: thin, normal, and obes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terms of style, textile, and color of clothing, as well as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arketing and management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targeting the segments a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성인여성(female adults), 체형 인식(perception of body type), 의복선호도(preference of clothing)

I. 서론

의복은 자기 표현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직접적인 전달수단 중 하나로써 적절한 의복은 자신감을 주게 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자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자신이 없을 경우,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자신의 체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감출 수 있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의복을 선호하는(中川早苗, 1989)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형과 의복선호도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조운주, 이정란, 2004).

특히 여성들은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체형은 키가 크고 말라 보이는 것이지만(이은영, 1997; Lennon, 1988) 대다수의 여성이 이러한 이상형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의 과정 및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점 이상적인 체형에서 멀어져가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의복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며 유행보다는 체형을 의식한 의복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의복의 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도 의복·외모 기준간의 상관연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신체에 대한 느낌이 의복 선호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asier, 1985).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은 여대생들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자기 체형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복착용이나 의복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체형과 관련한 의복행동에서 체형에 만족하면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김정숙, 1984; 김양진, 1992).

체형과 의복선호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형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형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실루엣에 관한 연구(임숙자, 권영남, 1986; 정삼호, 강혜원, 1991a; 박재경, 남윤자, 1999; 위은하, 박우미, 2003), 색채 및 직문문양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정삼호, 강혜원, 1991b), 의복 디테일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정삼호, 1998; 류숙희, 박종희, 2004)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

식하느냐에 따라 의복 선호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이 의복자체의 스타일, 색상 그리고 소재에 관련한 단편적 연구이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식에 따라 세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세분집단별로 의복 스타일, 색상 그리고 소재 등 종합적으로 의복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체형을 보정할 수 있는 착의방법이나 디자인의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각 집단별 인구통계적 변수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각 세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체적·심리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 의복원형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체형인식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실제체형과 체형인식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전경숙, 2002). Mable 등(1986)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은 자신의 체중에 대한 왜곡정도가 1%미만이지만 여성은 자신의 체중보다 15%정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대 여성은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형으로 여겨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데(김용숙, 1990; 박우미, 1993; 구양숙, 추태귀, 1996), 반면 중년여성의 경우 비교대상을 같은 연령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체비율이 더 굵고 짧음에도 신체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심정희, 2003).

체형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우미(2000), 남윤자, 이승희(2001)의 연구에서 한국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보다 마른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인식에서는 더 뚱뚱한 것으로 인식하고 더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자신의 실제체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

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나름대로 전체뿐 아니라 신체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갖고(정옥임, 1993) 불만족한 부위에 대해 끊임없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물론 비만과 관련된 신체 이미지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만 신체비율이나 형태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고 주로 크기와 관련한 신체만족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위은하, 박우미, 2003).

신체만족도는 실제 측정치보다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도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만족도가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더 관련됨을 나타낸다(정재은, 남윤자, 1999; 전경숙, 2002). 즉 신체만족은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중 인지체형과 관련이 더 깊으며(Lennon, 1988; 남윤자, 이승희, 2001) 착의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의복선호도

성인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변화를 의복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고, 체형에 어울리는 디자인 선호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착시현상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높여 디자인의 궁극적 목표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갖춘 의복을 선택하려는데 있다(정삼호, 1988). 사실 의복은 의복자체가 갖는 이미지라는 표현수단을 통해 착용자의 개성이나 역할, 태도, 분위기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며, 이러한 의복이 갖는 시각적 효과는 착용된 상태에서의 착용자의 특성과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이미지를 말하기도 하고, 의복자체의 스타일과 색상, 소재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장은영, 1994). 실제적으로 시각을 통한 디자인 요소는 선(line), 공간(space), 형태(form & shape), 빛(light), 색상(color), 재질(fabric), 문양(pattern) 등이 있으나(Davis, 1980), 의복에서 활용하는 디자인 요소에는 색상, 소재, 선 등이 있다(정삼호, 1988). 따라서 의복의 스타일, 색상, 소재는 의복선택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은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로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이다(Winakor & Navarro, 1987). 의복형태에 있어 선의 형태 및 실루엣 선의 특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이미경(1984)은 30-40대 여성보다 20대 여성이 활동성이 요구되는 스포티한 스타일을 더욱 선호한다고 하였다. 장혜원(1996)은 40-50대 주부들은 사교모임에 참석할 때 클래식한 이미지를 가진 의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류층이 상류층에 비해 매니쉬한 의복을 선호하며, 중류층이 상류층에 비해 내추럴한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희(1997)의 연구결과는 성인여성은 세련되고 심플하며 편안하고 현대감이 있는 고상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하는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색상에 대한 상징은 개인차, 국민성,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선호색에 차이가 있게 된다(임숙자, 1992). 임숙자(1992)의 연구에서 여대생은 명도와 채도가 낮은 무겁고 침착한 느낌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경숙(1996)의 연구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재는 의복디자인 요소 중의 하나로써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디테일보다 소재가 갖는 특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승희(1997) 연구에서 성인여성이 선호하는 소재는 부드럽고 가벼우며 고급스럽고 질감이 좋은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희숙(1993)의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이 선호하는 스커트의 소재는 촉감이 부드러운 옷감으로 나타났다.

3. 체형과 의복 선호도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통하여 체형의 단점을 감추는 의복을 선호한다(中川早苗, 1989)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형과 의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있다.

체형과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김정숙(1984)은 신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호하는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이를 통해 부정적인 신체 자아개념을 극복하려는 의복행동이 나타남을 시사하였다. 임숙자, 권영남(1986)의 연구에서는 마른 체형의 집단에서는 디자인과 스타일이 중시하는 반면 뚱뚱한 체형의

집단에서는 전체적인 어울림을 증시한다고 하였다. 김효숙 등(2001)의 연구에서는 체형별 스커트, 바지, 재킷에 대한 비교 결과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은 다양한 길이의 스커트와 밀착형 바지, 짧은 길이 솔칼라의 재킷을 선호하며, 평균적인 체형은 무릎길이 스커트와 넓은 통바지, 노칼라의 중간 길이 재킷을 선호하였고, 뚱뚱한 체형은 무릎길이 스커트와 넓은 통바지, 그리고 테일러드 칼라의 긴 길이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색상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마른 체형의 여대생은 밝은 색상, 뚱뚱한 체형의 여대생은 어둡고 진한 색상을 선호하며(권세미, 1977), 성인여성의 경우는 마른체형은 무채색을 선호하며 뚱뚱한 체형은 남색을 좀 더 선호한다고 하였다(이정순, 1977). 정삼호, 강혜원(1991b)의 원피스 색채선호 연구에서도 뚱뚱한 체형에서는 한색을 선호하였고 마른체형과 표준체형에서는 난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과 소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운주, 이정란(2004)의 연구에서 여대생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의복의 무늬, 디자인 및 스타일 뿐만 아니라 소재의 질감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50대의 성인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연령을 고려하여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04년 1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9부를 수거하였으며 응답상태가 불성실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7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92부이다.

2. 측정항목

체형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것으로 심정은(1997)과 전경숙(2002)에서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다이어트가 필요한 체형, 뚱뚱한 체형, 체형에 대한 심각한 생각,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 체형

이 드러나는 의복기피함 등 5개의 측정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복선호도는 의복의 스타일, 색상 그리고 소재에 대한 선호도로서 이 세 가지는 의복선택 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승희, 임숙자, 1998). 또한 김희숙, 나미희(2004)의 지적처럼 의복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 색상 그리고 소재에 대하여 이루어져 이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승희(1997), 이승희, 임숙자(1998) 연구에서 사용한 의복스타일 선호도 14개 문항, 의복색상 선호도 5개 문항, 그리고 의복소재 선호도 문항 10개로 전체 29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의 과정을 거쳐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자기 체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분화하기 위하여 군집 분석 및 판별분석을 하였고, 각 세분집단별 의복 선호도인 의복 스타일, 의복 색상, 그리고 의복 소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세분집단별 차이분석을 하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

자료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 이하가 68명으로 35.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대 60명(31.3%), 40대 52명(27.1%), 50대 이상 12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64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주부 등 56명(29.2%),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44명(22.9%), 사무·기술직 28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8명(4.2%), 101-150만원 이하 24명(12.5%), 151-200만원 이하 36명(18.8%), 201-300만원 이하 36명(18.8%), 301-400만원 이하 24명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비율(%)
연 령	20대	68	35.4
	30대	60	31.3
	40대	52	27.1
	50대 이상	12	6.3
직 업	전문직	64	33.3
	사무·기술직	28	14.6
	대학생	44	22.9
	주부 등	56	29.3
월 소득	100만원 이하	8	4.2
	101-150만원	24	12.5
	151-200만원	36	18.8
	201-300만원	36	18.8
	301-400만원	24	12.5
	401-500만원	52	27.1
	501만원 이상	12	6.3
학 령	고졸이하	28	14.6
	대졸(재학포함)	132	68.8
	대학원졸 이상	32	16.7

(12.5%), 401-500만원 이하 52명(27.1%), 501만원 이상이 12명(6.3%)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28명(014.6%), 대졸(대학재 포함)이 132명(68.8%), 대학원졸 이상이 32명(16.7%)로 나타났다.

2.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의복 스타일 선호도, 의복 색상 선호도 및

의복 소재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은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에 의하여 검증하였는데, 항목전제 상관성 값이 .4이상인 변수들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먼저 의복 스타일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서 한 개의 측정항목이 항목-전제상관성 값이 .4이하로 나타나 제거한 후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표 2〉와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77~.86으로 나타나 Nunnally(1978: 56)가 제시하고 있는 신뢰성 평가기준인 .60을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구성개념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으며, 요인 수는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다. 의복 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최종요인은 우아한 스타일, 현란한 스타일, 평범하고 편안한 스타일, 단순하고 노숙한 스타일로 4개가 추출되었는데, 선택된 4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73.5%이다.

의복 색상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 〈표 3〉과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66~.7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 수는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것을 선택하였으며 의복 색상 선호도에 대한 최종요인은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 평범한 색상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선택된 2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8.1%이다.

의복 소재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66~.85로

〈표 2〉 의복 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의복 스타일 선호도	변 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아이겐값	α	분산율
우아한 스타일	예쁜 스타일	.822	.799	3.630	.7837	27.9
	고상한 스타일	.791	.687			
	드레시한 스타일	.678	.584			
	정장 스타일	.673	.569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	.591	.466			
현란한 스타일	눈에 띄는 스타일	.942	.931	2.794	.8606	21.5
	관능적인 스타일	.939	.925			
	세련된 스타일	.665	.765			
평범하고 편안한 스타일	평범한 스타일	.879	.812	1.677	.7751	12.9
	얇전한 스타일	.818	.767			
	편안한 스타일	.758	.593			
단순하고 노숙한 스타일	단순한 스타일	.895	.856	1.448	.8318	11.1
	노숙한 스타일	.887	.795			

〈표 3〉 의복 색상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의복 색상 선호도	변 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아이겐값	α	분산율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	화려한 색상	.890	.808	2.136	.7606	42.7
	흔하지 않는 색상	.880	.777			
	유행하는 색상	.852	.568			
평범한 색상	무난한 색상	.845	.719	1.267	.6688	25.4
	탁하지 않는 색상	.728	.531			

〈표 4〉 의복 소재 선호도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의복 소재 선호도	변 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아이겐값	α	분산율
실용적인 옷감	울이 뜯기지 않은 옷감	.874	.789	3.627	.8547	36.3
	질감이 좋은 옷감	.829	.704			
	세탁이 용이한 옷감	.820	.694			
	보프라기가 생기지 않는 옷감	.739	.717			
	활동적인 옷감	.689	.534			
개성적인 옷감	새로운 옷감	.833	.712	1.812	.6662	18.1
	독특한 옷감	.711	.641			
	고급스러운 옷감	.680	.508			
	부드럽고 가벼운 옷감	.550	.641			
유행하는 옷감	유행하는 옷감	.859	.752	1.448	-	12.5

나타났으며, 요인 수는 아이겐 값이 1이상인 것을 선택하였는데 의복 소재 선호도에 대한 최종요인은 실용적인 옷감, 개성적인 옷감, 유행하는 옷감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선택된 3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6.9%이다.

3. 체형 인식에 대한 군집분석 프로파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을 세분하기 위하여 워드법

(ward's method)을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과 퀵 클러스트(quick cluster)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최종 3개의 세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명을 명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체형인식에 대한 분산분석을 한 결과 군집 1은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지 않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날씬한 인식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모든 측정항목에서 3개의 집단 중 평균값이 중간이어서 보통 인식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

〈표 5〉 군집분석 결과

측 정 항 목	군집1	군집2	군집3	F값
	날씬한 인식집단(n=68)	보통 인식집단(n=68)	뚱뚱한 인식집단(n=56)	
다이어트가 필요한 체형	2.06(A)	4.53(B)	5.29(C)	182.4**
뚱뚱한 체형	2.29(A)	4.41(B)	6.00(C)	215.2**
체형에 대한 심각한 생각	2.41(A)	3.59(B)	5.00(C)	102.8**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	2.76(A)	4.53(B)	6.07(C)	169.5**
체형이 드러난 의복 기피	3.53(A)	3.88(A)	5.29(C)	51.6**

Wilks' Lambda(.137), $p < .000$, Pillai's Trace(.996) $p < .000$

Hotelling-Lawley Trace(5.310), $p < .000$, Roy's Greatest Root(5.120), $p < .000$

** $p < .01$, 7점 척도의 평균값, ()안은 사후검정결과

집 3은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뚱뚱한 인식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는 윌크 램다, 호텔링-로울리, 로이 등 군집분석결과와 유의성 검증기준을 통해 볼 때,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노니컬 분석결과와 경우도 군집분석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리과정을 나타냈다.

4. 세분집단에 대한 판별분석

세분집단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대한 측정항목들과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측정항목을 진입시키는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판별함수 2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가 도출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으며, 판별함수 1만을 채택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판별함수 1의 경우 고유값이 5.120, 정준상관계수는 .915로 판별함수의 정준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0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판별식이 실제의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해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중률(hit ratio)의 경우 97.9%로 평가기준인 최대우연기준 35.0% $(=68/192)$ 와 비율우연기준 32.9% $(=(68/192)^2+(68/192)^2+(56/192)^2)$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매우 높은 판별력을 보이고 있다.

5. 세분집단별 차이분석

세분집단별로 의복 스타일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란한 스타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씬한 인식집단에서 현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표 6> 판별분석결과

판별함수	고유값	정준상관계수	Wilks 램다	자유도	p값
1	5.120	.915	.137	10	.000
요 인	표준화판별함수	Wilks 램다	F값	p값	
다이어트가 필요한 체형	.380	.294	226.6	.000	
뚱뚱한 체형	.532	.249	285.2	.000	
체형에 대한 심각한 생각	.194	.484	100.7	.000	
더 날씬하고 싶은 욕망	.366	.363	166.0	.000	
체형이 드러난 의복 기피	.166	.783	26.2	.000	
실제집단	빈도(전체192명)	예측집단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1(날씬한 인식집단)	68	68(100.0)	0(0.0)	0(0.0)	
군집2(보통 인식집단)	68	0(0.0)	64(94.1)	4(5.9)	
군집3(뚱뚱한 인식집단)	56	0(0.0)	0(0.0)	56(100.0)	

* 적중률 : 97.9%

<표 7> 세분집단에 따른 의복 스타일 선호도 차이분석

측 정 항 목	군집1 날씬한 인식집단(n=68)	군집2 보통 인식집단(n=68)	군집3 뚱뚱한 인식집단(n=56)	F값
우아한 스타일	4.89	5.08	5.21	1.560
현란한 스타일	4.00(A)	4.63(B)	4.74(B)	7.877**
평범하고 편안한 스타일	4.90	4.92	5.20	1.028
심플하고 노숙한 스타일	5.14	5.29	5.41	0.815

** p<.01, 7점 척도의 평균값, ()안은 사후검정결과

〈표 8〉 세분집단에 따른 의복 색상 선호도 차이분석

측 정 항 목	군집1 날씬한 인식집단(n=68)	군집2 보통 인식집단(n=68)	군집3 뚱뚱한 인식집단(n=56)	F값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	3.71(A)	4.25(B)	4.38(B)	8.055**
평범한 색상	5.53	5.47	5.68	1.155

** p<.01, 7점 척도의 평균값, ()안은 사후검정결과

〈표 9〉 세분집단에 따른 의복 소재 선호도 차이분석

측 정 항 목	군집1 날씬한 인식집단(n=68)	군집2 보통 인식집단(n=68)	군집3 뚱뚱한 인식집단(n=56)	F값
실용적인 옷감	5.69	5.51	5.89	2.278
개성적인 옷감	4.47(A)	4.76(B)	5.18(C)	16.034**
유행하는 옷감	5.12	5.06	5.00	.086

** p<.01, 7점 척도의 평균값, ()안은 사후검정결과

〈표 10〉 세분집단에 따른 인구통계적 차이분석

구 분		군집1 날씬한 인식집단 (n=68)	군집2 보통 인식집단 (n=68)	군집3 뚱뚱한 인식집단 (n=56)	전체	χ^2	p값
연령	20대	12(6.3)	36(18.8)	20(10.4)	68(35.4)	57.211	.000**
	30대	24(12.5)	12(6.3)	24(12.5)	60(31.3)		
	40대	32(16.7)	8(4.2)	12(6.3)	52(27.0)		
	50대 이상	0(0.0)	12(6.3)	0	12(6.3)		
직업	전문직	24(12.5)	12(6.3)	28(14.6)	64(33.3)	29.851	.000**
	사무·기술직	12(6.3)	16(8.3)	0(0.0)	28(14.6)		
	대학생	8(4.2)	20(10.4)	16(8.3)	44(22.9)		
	주부 등	24(12.5)	20(10.4)	12(6.3)	56(29.2)		
월소득	100만원 이하	0(0.0)	4(2.1)	4(2.1)	8(4.2)	53.126	.000**
	101-150만원	4(2.1)	20(10.4)	0(0.0)	24(12.5)		
	151-200만원	8(4.2)	12(6.3)	16(8.3)	36(18.8)		
	201-300만원	20(10.4)	8(4.2)	8(4.2)	36(18.8)		
	301-400만원	8(4.2)	8(4.2)	8(4.2)	24(12.5)		
	401-500만원	20(10.4)	16(8.3)	16(8.3)	52(27.0)		
501만원 이상	8(4.2)	0(0.0)	4(2.1)	12(6.3)			
학력	고졸 이하	8(4.2)	12(6.3)	8(4.2)	28(14.6)	1.334	.856
	대졸	48(25.0)	44(22.9)	40(20.8)	132(68.8)		
	대학원졸 이상	12(6.3)	12(6.3)	8(4.2)	32(16.7)		

** p<.01

이 낮으며, 보통 인식집단과 뚱뚱한 인식집단에서 현란한 스타일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집단별로 의복 색상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씬한 인식집단에서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을 선호하지 않고, 보통 인식집단과 뚱뚱한 인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집단별로 의복 소재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성적인 옷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씬한 인식집단에서 개성적인 옷감을 선호하지 않고 보통 인식집단에서는 선호하는 것이 중간이며, 뚱뚱한 인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적 변수와 자신의 체형 인식별 세분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사용하여 χ^2 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연령별 세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4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 세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전문직과 주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대학생과 주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전문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별 세 집단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201-300만원과 401-500만원의 월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101-150만원의 월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151-200만원과 401-500만원의 월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의복의 스타일, 색상 및 소재의 선호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먼저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통하여 세 개의 집단 즉, 날씬한 인식 집단, 보통 인식집단, 뚱뚱한 인식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집단별 의복 스타일 선호도, 의복 색상 선호도, 의복 소재 선호도를 비교분

석하였으며, 끝으로 각 집단 간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차이분석을 하였다.

첫째,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세 개의 집단별 차이를 보면, 현란한 스타일요인에서만 집단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현란한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반면에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김정숙(1984)의 연구에서 자신의 체형에 대해 덜 만족할수록 체형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다르지만 위은하, 박우미(2003)의 연구에서 체형에 대하여 수척하다고 인지하는 집단이 팔, 어깨, 가슴 위 부분을 모두 노출한 상의를 가장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임을 밝히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현란한 스타일은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는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의복 색상 선호도에 대한 세 개의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자신의 체형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화려하고 유행하는 색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뚱뚱한 집단일수록 색상이나 무늬를 중시(임숙자, 권영남, 1986)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의복 소재 선호도에 대한 세 개의 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 실용적인 옷감이나 유행하는 옷감의 선호도는 세 개의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개성적인 옷감의 선호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체형을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개성적인 옷감을 가장 선호하며, 자신의 체형이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미아, 이선희(1995)의 연구에서 체형을 따른 체형, 표준 체형, 뚱뚱한 체형으로 구분하여 옷감 선호도 조사에서 모든 체형에서 세탁이 간편한 옷감을 선호하면서도 다른 체형에서는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을 선호하는 한편 뚱뚱한 체형에서는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뚱뚱한 집단에서는 실용적인 것보다는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옷감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끝으로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세분집단 간의 차이

분석 결과, 자신이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반하여 날씬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마른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백희영 외, 2000) 일 것이다. 또한 날씬하거나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에서 전문직이 많았는데 이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사회적 활동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체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자신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의복행동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체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체형특성 및 각 개인의 체형인식 등을 고려하여 신체적·심리적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 원형개발 및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체형별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디자인할 경우에는 목표 시장에 따라 다른 디자인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시대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시장을 조사하여 의복원형개발이나 디자인개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필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표본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정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둘째, 체형 인식에 따른 세분화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계수를 통한 체형의 세분화도 필요하나 자신의 체형을 인식하는 인식체형이 실제체형보다 신체 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구양숙, 추태귀, 1996; 박우미, 1993; Lennon, 1988)에 더 중점을 두어 자신의 체형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분집단으로 구분하였기에 이에 대한 해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구양숙, 추태귀(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

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권세미(1977).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덕성여대 논문집, 5(6), 67-79.

기희숙(1993). 성인여성의 스커트 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숙, 임 순, 손희정(2001). 중국여성의 체형별 의복 행동 및 의상디자인 선호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11), 15-26.

김희숙, 나미희(2004). 재킷용 의복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105-113.

류숙희, 박종희(2004).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67-376.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박재경, 남윤자(1999).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백희영, 남윤자, 박재경, 김주연(2000). 신체에 대한 의식과 계측자료에 의한 의대생들의 체형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3), 59-70.

서미아, 이선희(1995). 노년기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 및 의복 만족도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3(1), 41-64.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정희(2003). 중년여성의 체형에 대한 자기평가. 한국 의류학회지, 27(1), 18-28.

- 위은하, 박우미(2003). 중년여성의 신체부위 인지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착의 의복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27(9/10), 1112-1123.
- 유경숙(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경(1984).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1997). 백화점의 여성복 자체브랜드 제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희, 임숙자(1998).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100-110.
- 이은영(1997).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 이정순(1977). 의생활과 색채에 관한 연구. *충북대 논문집*, 5(6), 31-42.
- 임숙자(1997).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숙자, 권영남(1986). 의복행동과 지능·사회경제적 지원 및 체격과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10(2), 37-50.
- 장은영(1994).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선택 모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원(1996).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2002). 체형의식에 따른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식*, 52(3), 75-85.
- 정삼호(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총*, 2, 61-83.
- 정삼호, 강혜원(1991a).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 -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103-113.
- 정삼호, 강혜원(1991b).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II) -색채 및 직물문양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3), 297-307.
- 정옥임(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체형과 실제체형의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53-162.
- 정재은, 남윤자(1999). 20대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1), 159-169.
- 조윤주, 이정란(2004). 여대생의 체형인식에 따른 만족도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2), 262-269.
- 中川早苗(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聯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 11.
- Kaiser, S. 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Mable, H. M., Balance, W., & Galgan, R. (1986). Body image distortion and dis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3, 907-911.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Winakor, &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89-102.

(2005년 3월 28일 접수, 2005년 9월 9일 채택)